

조국 으르고 달려고... 민주 '평택乙 단일화' 압박

박지원 "대권 원한다면 미래를 노려야" 용단 촉구 ▶ "국힘 1위 댄 검토"... 김용남 "가능성 없다" 조승래 "당락을 합당과 연계시키지 말라" 썩기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후보는 20일 범여권 단일화에 대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1위가 되는 상황이 되면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반면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조 후보의 미래를 위해서도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조 후보의 '당선 후 합당' 주장에 대해 "조국 대표 당락을 합당 논의와 연결하는 건 역지 논리"라며 선을 그었다.

조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위해 '당근'과 '압박'을 동시에 가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분석된다. 조 후보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유의동 플러스 황교안(자유와혁신 후보)의 총합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 것 이라고 본다"면서도 "(황 후보가 사퇴해) 유의동 후보가 1위가 되는 상황으로 급격히 전개된다면 저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남 후보에 대해 "(임명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등 역할과 능력이 있다 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검찰개혁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면 (민주당 등과)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대정신, 예컨대 검찰개혁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소신과 다른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도 통제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의 합당과 관련해서 "지방선거 끝내면 연대와 통합위원회를 본격 가동시킬 것"이라며 "제가 국회에 복귀해야 이 문제를 더 본격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조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의사소통은 전혀 없었다"면서 "지금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후보 단일화 내지는 선거 연대를 하려면 연대 의식이 형성돼 있어야 된다"며 "(하지만) 조국 후보 또는 조국혁신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구태스러운 선거 문화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도 이미 선관위에 후보 등록이 이뤄졌기 때문에 후보가 동의하지 않는 단일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한 "국민의힘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기미는 아직 안 보인다"며 "중간에 어떤 변수(유의동-황교안 단일화)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1년 6개월 전에 벌어진 내란 사태를 전후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표를 주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의동-황교안 간) 단일화 가능성도 낮게 본다"며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범여권 단일화 문제를 놓고 김 후보의 입

장이 강경한 가운데, 민주당 측은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조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배경이 주목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사퇴하면 평택에 뼈를 안 묻어도 된다. 2년 뒤 총선 때 민주당에서 공천 줄 거 아니냐"며 "그 때 대권 후보로 경쟁하는 그런 미래를 보아지 소탐대실하면 큰일 난다"고 결단을 주문했다. 또한 "만약 선거에 패배하면 본인도 조국혁신당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보 세력의 대동단결을 위해 사퇴하면 미래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제명 대통령을 함께 당선시켰고, 지난 2년간 같은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국회가 끝날 2년간에도 함께 가야 개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내다냈다. 이어 "그러려면 통합해야 한다"며 "조국 대표도 호랑이 굴로 들어와서 호랑이를 잡아야지, 조국혁신당 대통령 후보 돼 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냐"라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단일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 당락을 합당 논의와 연결하는 건 역지 논리"라고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어제 대표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는 건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가 끝까지 갈 건지 등 상황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상황 변동이 생길 경우 구도가 유지될 건지 등을 포함해 전체적 흐름들에 대해 모든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대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정청래(가운데) 대표가 20일 경기도 여주시 민주당 박시선 여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등 참석자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의 도덕성 논란을 집중 부각시키며 보수층 결집 총력전에 나섰다. 정동혁(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뭇 '철근 누락' 연일 강공... 국힘, 정원오 '주폭' 역공

스카이 만평 김용덕

새로고

〈1면에서 계속〉 민주당은 단일대오 형성과 함께 바다 민심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 대표는 20일 경기 여주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내일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다"며 "민주당은 과란 길을 캠페인과 함께 자전기 유세단, 푸벅이 유세단 등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어우러지는 선거운동, 당원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선거운동으로 새로운 선거문화의 지평을 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접전지역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공세 고삐도 바짝 쥘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GTX-A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시공과 감리, 관리의 총책임자인 오세훈 후보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시종일관 변명하는 것처럼 정말 몰랐

다면 그동안 서울시에는 사업과 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것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 범죄"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의 도덕성 논란을 집중 부각시키며 보수층 결집 총력전에 나섰다. 박빙 지역일수록 보수층의 투표 참여율이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민주당 후보들의 도덕성도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폭력 후보, 갑질 후보, 유혹 후보들 당선시키면, 지방자치까지 부패하고 망가질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뿌리까지 썩은 민주당을 퇴출시키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후보들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접미가경"이라며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막장 공천'이

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낮 뜨거운 의혹과 검증 실패로 얼룩진 민주당에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까지 맡길 수는 없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막장 공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bane 따끔하게 혼을 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 정원오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규곡역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을 통해 "6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주당과 정 후보의 선거 전략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의혹으로 서울시민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진정성 없는 말 한마디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민이 원하는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 앞에 도망치지 않고, 과담 대신 정책으로 승부하며, 시민의 안전을 선거 도구로 삼지 않는 후보"라며 "안전 불감증을 조장해 시민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부동산에 대한 민발 하나로 민심을 수습해 표를 얻겠다는 계산이 서울 시민에게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서울시장 후보직을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보 5월 21일부터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3만6500여 곳에 철폐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정책·공약이 기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24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25년 경력의 일간지 교열기자가 말하는 글을 고치고 다듬는 기법 공유

다	쓴	글	도
	다	시	보
		자	

단순히 말을 문자로 옮기면 글이 된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글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말에 '듣는 이(聽者)'가 있듯이 글에도 '읽는 이(讀者)'가 있다. 혼잣말을 듣는 이는 자신이며 일기를 읽는 이 역시 자신이다. 실언(失言)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실문(失文) 역시 부끄러워해야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면 쓰는 글이 좋아야 읽는 이의 평도 좋을 것이다.

박재영 저 | 336쪽 | 20,000원 | 글로벌문츠

-서문에서